

GOOD NEIGHBOR MINISTRY

Vol. 100 / April ~ June, 2017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사람을 바라보는 눈

몇 달 전 신문에서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한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살로 판정이 된 그 학생은 한국에서 명문 사립학교로 알려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그 학생은 지난해에는 한국의 TV 방송에서 진행한 10대 학생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큼, 장래가 촉망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자살 이유는 공부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문기사를 보면서 혹시 그 자살의 이유가 자신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주변의 기대가 그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완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완전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국가를 완벽하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만일 대통령이 될 분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할 때는 가차 없는 비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커던 만큼 비판도 커지는 것이지요. 이는 애초에 완전이라는 잣대로 그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완전’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슈퍼맨’이 되기를 기대하고 남편은 아내가 ‘슈퍼우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완전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면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비판과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완전’이라는 잣대로 바라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깨어 있는 시간에는 오직 공부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자녀를 나무라고 다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완전이라는 잣대로 바라볼 때가 많고 그 결과는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처럼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모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결코 완전이라는 잣대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이라는 잣대로 여인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그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만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같이 인기 있는 분이 자신 같은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야단치시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지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예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완전이라는 잣대로 정죄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이라는 잣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긍휼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잘못된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위로해 줄 수 있고 장점은 칭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돈독해 지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긍휼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자녀들의 삶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나아가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모두 완전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긍휼함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시편146:1-2)

「미국 노인 복지 홈」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널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널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업」입니다.

Coming Events

- 5/14 Mother's Day
6/17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As I leave this ministry…

One of the most wonderful things happened moving to East Coast 8 years ago was being part of this nursing home ministry. Initially, I began to serve as a volunteer with a heart of compassion at the Lillian Booth Fund Home but when our church was asked to take full charge of the ministry, I struggled with a sense of fear. Embracing the new ministry was a faith stretching experience that I would not regret.

There were also days I saw the image of God in the residents as God whispered into my ears, "These are my people who are made in my image." Each time I am there, I see God's love being poured unto them. When I stand before them to preach, it was not my own words but surely was God speaking and reaching out to them as they face the last stage of their lives.

Some of the residents are Jewish in their heritage. Some peek into worship out of curiosity and then gradually became regular. One of the residents, Kenneth was a cantor in a synagogue. He began to come because he loves to sing in our worship. Then he started to express his appreciation to us for uplifting presence. During our summer break last year, he lost his second leg due to diabetes. We regularly prayed for him during that time. When we got together with him in the fall, he was full of hope in despite of his loss. He listened to sermon and he let us know he got it and that he was so encouraged by it. Last week, after the sermon on the Reality of Sin and Death, he confessed, "it is the Truth."

There was not a single day that the Holy Spirit didn't work powerfully in the worship. I believe that God has anointed this ministry. It was a privilege to be part to see God at work redeeming His people.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 1 Corinthians 15:58

5월의 하나님

이제야 나무가

말을 알아 듣고 말을 합니다

이제야 꽃이

당신의 입술을 흉내 내어 말을 배웁니다

푸르고 붉은 것들이 온 세상에 물결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

푸르디 푸른 은혜를 어찌 감추리요

5월의 하나님,

우리도 따스한 말을 배우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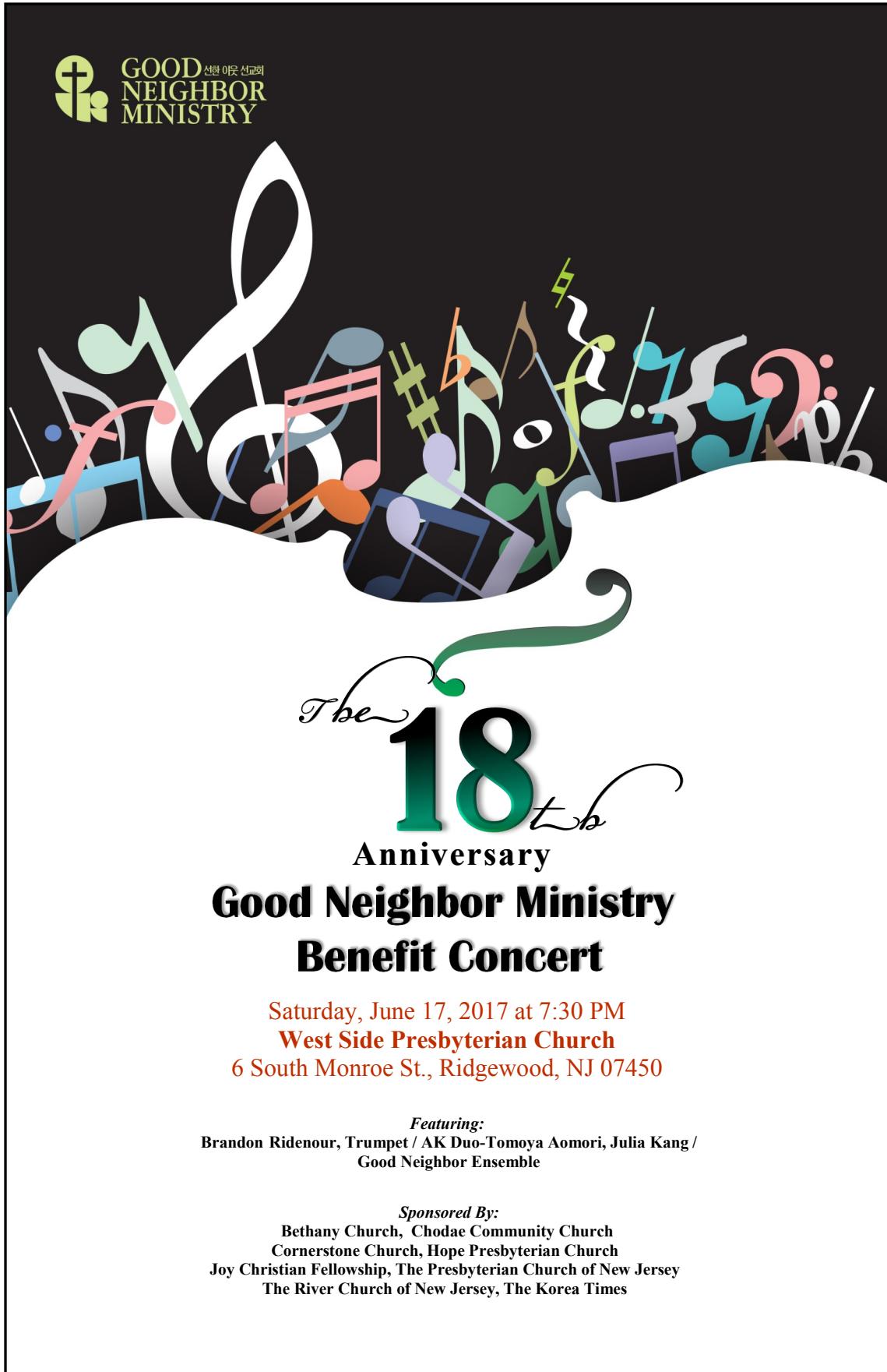
참지 못해 견디지 못해 터진 붉고 노란 꽃처럼

사랑의 노래를 전하게 하소서

김 은자 권사/시인

Nicole Oh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음악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PHOTO GALLERY

Sunrise of Cresskill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Buckingham at Norwood(1st FL.)



Oradell Health Care Center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한 소 망 요 양 원

PHOTO GALLERY



「CareOne at The Cupola」



대통령 사회 봉사상 수상자들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Buckingham at Norwood(1st FL.)



CareOne at Valley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CareOne at The Cupola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My Experience of GNE

It's hard to believe that the end of my first and last year at GNE is almost over. I remember when my mom first asked me if I wanted to join, end of my junior year. I told her I would think about it because I knew the busiest year of my high school days was coming up. Between college apps, daily practice, and upcoming college auditions, I knew this was only going to be possible if I was truly committed to it. I was aware that I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the President's award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fulfill the required hours in one year, but I ultimately decided to join because I wanted to use my talent to make other people happy. As a music major, we practice hours and hours everyday to show off our skills to other people. I've been doing this since I was 3 years old, and I wanted to bring a change into my life. I wanted to use this skill that I've been working on my whole life to serve other people, which is what GNE is all about.

As a new member, it was definitely intimidating to lead a whole group, but through rehearsals, it got easier. GNE not only let me make others happier, but it also made me happier. The feeling I get after giving a great performance is always amazing, but the feeling I got after playing for the residents [at the nursing homes] was a different kind of amazing that I had never felt before. My goal in GNE this year was to make someone's day through a performance, and the smiles

left on the elders assured me that I was on the right path.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e original purpose for this ensemble. Sometimes it's so easy to think of GNE as just another orchestra program, but it's much more than that. Of course it's important to pre-



Esther Song, Sunrise at Old Tappan

pare and show our best at any performance, but it's really not about how well we play because we're not doing this to show people how great we are. We're doing this to serve other people through music and the word of God. It was definitely a challenge for me to fit rehearsals and nursing home performances into my schedule, but I'm so happy to be able to say that I was a part of such a special community.

Esther Song
Northern Valley Regional HS at OT 12th

2017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생 모집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참 모습을 보여 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길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2016년에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 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의 교육 신념을 기리며 동시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 및 자녀
- 2017년 6월 고교 졸업 예정자 이상(대학/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 미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우수 인재

선발 인원: 3명 내외

지원 사항: 장학금 - 일인당 \$1,500의 학습 보조비 지원

신청 기간: 4/1/2017 ~ 5/20/2017

신청 방법:

아래로 이메일을 주시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 Joon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Email: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C. 201-759-5688
- Soo Jin Lee: Director of Good Neighbor Ensemble
Email : sjlee0124@gmail.com
C. 201-658-4537

최종 선발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수여:

• 최종 선발 결과 발표: 6/10/2017

• 장학금 수여: 6/17/2017

창립 18주년 기념 선한 이웃 자선 음악회

선교회

소식

선교회 소식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가 6월 17일(토) 7:30 PM에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5월, Mother's Day를 맞이하여 24개의 양로원에서 선물 증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물 준비를 위해 도와 주신 초대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지난 4월, 봄 방학 기간 중 사역을 진행해 주신 여러 봉사자와 훌륭한 연주를 선사해 준 선한 이웃 양상을 단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Piano Donation :

1. Bergen Regional Medical Center 정신 병동/조율-피아노를 기부해 주신 허소운님께 감사 드립니다.
2.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at Rochelle Park/조율

* 오는 6월 23일로 상반기 양로원 사역이 종료 됩니다. 7월, 8월에는 대부분의 양로원 사역이 중단되며, 2017년 하반기 양로원 사역은 9월 5일부터 재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음악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ouTube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Type 하시면 선교회 Channel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Subscribe하셔서 앞으로도 새로 올라오는 선교회 관련 동영상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Kenny Yoon, 송희수, Jaebum Kim/Debora H Kim, 정구임권사

수입 : \$300

총수입 : \$13,250

총지출 : \$4,500(장학금 수여)

선교 회원 동정

❖ 아주 : Jin Oh 목사, Nicole Oh 전도사 -
뉴저지주 Salem County로 이사

후원해 주신 분들(2017년 3월 ~ 4월)

정구임, 임미영, 서연희, Joy Church, 베다니 교회

수입 : \$3,500 지출 : \$5,799.67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새로 시작한 한소망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양상을 출입생 11명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복 기도
- 선한 이웃 새로운 단원들과 함께 양상을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Brenda 조,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전도사: 니콜 오,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 건강을 위한 기도

강신억 집사(강인숙 권사 부군),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딸님),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정은영 사모, 전원옥 사모(수술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Jane(암 투병/ Nicole Oh 전도사님 친구), Benny De Marco(건강), Nikki Papadopoulos(수술 회복)-Oradell,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Day	Place	Volunteer
월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예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조미경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수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안혜신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Jeannie Hwang 선생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김금화 집사,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최성아 집사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서울옥 집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김금화 집사,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박경옥 권사,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이해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박경옥 권사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버겐병원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양상불 단원 등정

1. All State Orchestra:
Hee Sook Bok, Julia Jeong, Sarah Hwang, Noel Cho, Karen Jo
2. NJ Honors Chamber Orchestra: *Peter Park*
3. Noel Cho:
CBS Sunday Morning Show 출연,
NJ Symphony Orchestra-Youth 솔로 협연
4. Ji Hoon Haam:
Grand Prix Winner of Concert Festival Concerto Competition, Grand Prix Ensemble Winner of New York Concert Festival International Competition
5. Daniel Seog:
Monmouth Symphony Young Artist Concerto Competition 입상, *Chamber Music Society of Lincoln Center, Young Musicians Concert at Alice Tully Hall, Juilliard Precollege Symphony Principal 2nd violin*
6. Joseph Lee:
American Fine Arts Festival International Competition Ensemble 입상

양상불 특별 활동 행사 일정

- 5월 13일(토): 2:30 PM
Oakland Rehab. & Healthcare Center
- 5월 14일(일): 11:00 AM Sunrise of Old Tappan
- 5월 20일(토): 2:00 PM Norwood, Buckingham
- 6월 03일(토): 2:00 PM
Rockleigh,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 8월 05일(토): 2:00 PM Westwood, CareOne at Valley
- 8월 12일(토): 2:00 PM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 8월 19일(토): 2:00 PM Norwood, 은혜가든
- 8월 26일(토): 2:30 PM
Armenian Nursing & Rehab Center in Emerson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 4월 04일(화): 선한 이웃 선교회 이사회
- 4월 18일(화): 2017-2018학년도 선한 이웃 양상불 신입 단원 선발 오디션 - 6명의 신입 단원 선출
- 6월 17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